

## News

### '신용대출 속도조절' 추가로 남은 카드는…DSR 강화·분할상환제 '만지작'

한국경제

은행들이 예상하는 첫 번째 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신용대출 상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DSR을 끌어올리는 방법....  
신용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력한 대책으로 꼽혀....

### 한은 역할에 물가안정 외 '고용안정'도 추가

동아일보

여야가 한국은행의 역할에 물가 안정 외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한은법 개정을 추진... 미 연준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중앙은행도 고용 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명시...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는 데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법안이 제출되면 목표 설정과 관련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의 과감한 변화를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할 것"

### 빈수레가 요란?...친환경 빠진 금고유치전

파이낸셜뉴스

주요 지방자치단체 등은 '친환경'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삼아 금고은행을 선정할 것이라고 선언... 실제로는 앞선 선언과는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  
"향후 친환경 금고전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칠지 아니면 실제 활성화로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하나은행 '유니폼' 없앤다…근무복장 자율화

연합뉴스

하나은행이 최근 '유니폼'을 없애고 근무복장 전면 자율화를 도입...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별도 결과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  
하나은행은 딱딱한 직급 대신 영어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르는 '실험'도 진행중....

### 즉시연금 소송서 가입자 첫 승소…“미래에셋생명, 전액 지급해야”

매일경제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고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겨... 주요 생보사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상당...  
업계에선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생보사들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내놓아...

### 불티나게 팔리는 변액보험, 하루살이 계약 판친다

데일리안

생보사들이 올해 들어 새로 유치한 변액보험 계약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5000억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나... 불완전판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코로나19 이후 한층 심화한 저금리의 반대급부로 그나마 나온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 상품 중 하나로 변액보험에 관심을 받는 모습"

### 금감원 제재심, 라임 판매 증권사 3곳 전·현직 CEO 중징계

국민일보

금감원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면 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 토스증권 연내 출범 '임박'…오늘 증선위 본인가안 상정

뉴스1

토스의 증권업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가... 두 차례 남은 금융당국의 심의를 거치면 토스가 12년만에 새로운 증권사로 이름을 올려....  
"금융의 맥락을 확장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활성 유저를 보유하게 된 금융 앱이란 면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다"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체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